



## 泄瀉에 對한 考論

學術委員：崔 振 百  
(慶南·崔韓藥房)

### • 序 論

下水終末處理가 잘되면 自然환경이 깨끗하듯이 大便이 순조로우면 그 사람의 건강이 비교적 양호하고 特히 消化器계통이 이상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西醫學의 눈부신 발달로 平均 수명이 높아지고 난치병도 하나 둘 정복되고 있지만 泄瀉로 고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종합병원에서 수 십일 入院치료 하여도 효과를 보지 못한 초등학생에게 錢氏白朮散 수첩으로 完治되고 십 수년 食後마다 화장실을 가야하는 환자는 參苓白朮散 1~2劑로 完治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새벽만 되면 下腹痛과 함께 泄瀉를 하는 경우 胃關煎等은 그 效力이 뛰어났다. 泄瀉의 辨治에 對하여 주로 景岳全書와 中醫內科學을 根據하여 이를 論하고저 한다.

### • 論 證

(1) 內經에서 飧泄과 濡泄은 泄瀉이고 臟癖은 下痢이다. 그러나 痢는 瀉에서 비롯되니 瀉와 痢는 본래 같은 종류이다

그러나 瀉는 얇고 가벼우며 痢는 깊고 중하며 瀉는 水穀이 不分함에서 비롯되며 中焦에서 나오고 痢는 脂血이 傷敗하여 병이 下焦에 있는 것이다 中焦에 있는 것은 濕은 脾胃에서 비롯되어 小腸에서 나누어지는 까닭으로 원천을 맑게하면 되니 치료를 分利가 마땅하고 下焦에 있는 병이 肝, 腎, 大腸에 있어 分利가 미칠 수 없어서 眞陰을 조리하고 아울러 小腸의 主를 도와서 氣化의 원천을 보태주면 된다

(2) 泄瀉의 근본은 脾胃에서 비롯되고 胃는 水穀의 海이고 脾는 운화를 主하니 脾가 건강하고 胃가 조화되면 水穀을 腐熟시켜 營衛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飲食失節이나 起居不時로 脾胃가 傷하게 되면 水는 도리어 濕이되고 穀食은 도리어 滯하여 精華한 氣가 輸化할 수 없으니 이에 汚濁한 것과 合해져 하강하여 瀉痢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脾가 강하면 滯한

것이 제거되면 치유되니 淸利逐攻이 가능하다

脾가 약한자는 虛로 인해 쉽게 설사하게 되고 설사로 인해 더욱 虛해진다. 대개 關門이 견고하지 않으면 氣가 설사를 따라 나가니 氣가 나가면 陽이 쇠하게 되고 陽이 쇠하면 寒이 中을 따라 생기니 진실로 外에서 風寒을 받지 않았는데도 비로서 寒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陰寒의 성질은 下降이니 하강하면 반드시 腎에 미치게 되는 까닭으로 瀉를 많이 하면 반드시 亡陰하게 되니 陰中의 陽이 亡했다고 하는 것일뿐이다. 그러므로 설사가 낫지 않으면 반드시 太陰에 少陰으로 전하여 腸僻이 되는 것이다. 腸僻이란 降泄이 심하여 陽氣가 不升해서 臟氣가 不固해진 病이다.

(3)泄瀉의 원인에 대하여는 오직 水火土의 三氣가 가장 중요하다. 대저 水는 寒氣이고 火는 熱氣이며 土는 濕氣인데 이것이 瀉痢의 根本인 것이다 비록 木도 설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土가 상함을 받은 것이다. 金도 역시 설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金과 水는 같은 氣이니 淸함으로 인해 燥를 잃은 것이다. 이 세가지를 알아야 다 안 듯 싶지만 이중 오직 水火의 二氣이면 충분히 다 아는 것이 된다

五行의 성질에서 寒이 아니면 熱로 병이 되는 것이니 대저 熱은 대부분 실이고 虛는 대부분 寒인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원인을 살피고 有餘인지 不足인지를 구별하여 치료하면 낫지 않은 경우가 없고 잘못되는 경우도 없는 것이다

#### • 類證鑑別

본병과 痢疾의 病變部位는 모두 腸間에 있으므로 마땅히 미리 감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복통으로 裏急後重, 赤白粘液下痢이면 이질이고 배변의 횡수가 많아지고 糞便이 稀당하며 심지어 물과 같은 것은 설사이다. 설사도 역시 복통증이 있지만 대부분 腸鳴脘脹이 동시에 출현되고 通便 후에는 卽減한다 이질은 복통과 이급후중이 동시에 출현되며 그 通便후에도 감하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二者는 구별이 어렵지 않다. 설사는 證型이 많다하더라도 각각 특성이 있다 外感泄瀉는 대부분 表證이 뒤섞이므로 마땅히 寒濕과 濕熱은 구별해서 치료를 논하지 않으면 안된다.

食滯胃腸의 설사는 腹痛腸鳴에 糞便의 냄새가 썩은 계란과도 같고 瀉後에는 痛減이 되는 것이 특성이다. 肝氣乘脾의 설사는 胸脇脹悶, 暖氣食少에 항상 情志가 鬱怒하면 더욱 極하여 지는 특성이다. 脾胃虛弱의 설사는 대변의 때로는 塘하고 때로는 瀉하며 水穀이 不化되고 약간 油膩物이 있으면 대변의 횡수가 늘어나고 面黃肢倦한 것이 특성이다.

## □ 학술

腎陽虛衰의 설사는 대부분 날이 새기 전에 있고 腹痛腸鳴이면 卽瀉하고 瀉後에는 편안하고 形寒脂冷 腰膝酸軟한 것이 특성이다

### • 辨證論治

泄瀉는 배변의 횟수가 늘어나고 糞便이 淸稀한 것이 특성이다. 辨證時에는 마땅히 寒熱虛實을 구별해야 한다. 大便色이 淸稀하고 完穀不化는 대부분 寒證에 속한다. 大便色이 黃褐하고 냄새가 나며 瀉水가 急迫하고 肛門이 灼熱하면 대부분 熱證에 속한다.

瀉下腹痛 痛勢가 急迫拒按하고 瀉後痛減하면 대부분 實證에 속한다. 病程이 비교적 길고 腹痛이 심하지 않고 喜溫喜按 腎疲肢冷하면 대부분 虛證에 속한다. 다만 病變의 과정이 복잡하고 왕왕 허실이 兼挾하여 나타나고 寒熱이 互見하는 까닭에 변증시에는 마땅히 全面的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治法上으로는 「醫宗必讀」에서 治瀉에 9가지 法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淡滲 升提 淸涼 疎利 甘緩 酸收 燥脾 溫腎 固澁등으로 치법상으로도 비교적 크게 발전되고 있다.

### 1 外邪의 感受

六淫의 邪는 泄瀉를 유발할 수 있으나 그중에서 寒濕暑熱등의 원인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脾臟은 喜燥하고 惡濕하며 濕邪는 가장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難經에서 “濕은 대부분 五泄을 일으킨다.” 라고 했다. 그밖에 寒邪나 暑熱의 邪는 肺衛의 皮毛를 侵濕할뿐만아니라 직접 脾胃에 영향을 주어 비위의 기능을 장애하여 설사를 일으키게 하지만 대부분 濕邪와 有關하다.

#### (1) 寒濕. 風寒

① 症狀 : 淸稀하고 심하면 물갈으며 腹痛, 腸鳴, 脘悶, 食少 혹은 惡寒發熱이 併有되고 鼻塞 頭痛 肢體酸痛 薄白苔 이거나 白니하며 濡緩脈이다

② 證後의 分析 外感 寒濕이거나 風寒의 邪와 胃腸에 侵襲하였거나 生冷을 過食하고 升降失調, 淸熱불분, 飲食不化, 傳導가 失司되는 까닭에 大便이 淸稀하다. 寒濕이 內盛하고 胃腸의 氣機가 受阻되면 腹痛腸鳴이 난다.

寒濕이 困脾하면 脘悶食少한다. 惡寒發熱 鼻塞頭痛 肢體산통은 風寒外束의 증상이다. 백니태 濡緩脈은 寒濕內盛의 象이다.

#### ③ 治法 및 方藥

解表酸寒, 芳香化濕

藿香正氣散 을 主方으로 한다.

濕邪가 偏重되어 胸悶腹脹에 尿少하고 肢體倦怠, 백니뜸者에는 위령탕을 쓰면 淡滲分制할 수가 있다 濕이 勝하고 寒이 없어지면 사령산 小分清飲의 종류를 쓰면 清濁이 나뉜다. 濕熱이 脾에있어 熱渴喜冷하면 大分清陰, 茵陳飲, 益元散, 小分清飲의 종류를 쓰면 清濁이 나뉜다. 濕熱을 제거하여 利를 시킨다.

(2)濕熱, 暑濕

① 症狀 · 泄瀉 腹痛 泄下가 急迫하고 혹은 瀉가 상쾌하지 않으며 糞色黃葛 小便短黃 黃니 설태 濡數脈이거나 滑數脈이다

② 症候의 分析

濕熱의 邪나 暑濕으로 腸胃가 傷하여 傳化가 失調됨으로 생긴다. 暴注下迫은 모두 熱에 속하며 腸中에 熱이 있는 까닭에 瀉下가 急迫하다 濕熱內盛의 증상이다.

③ 治法 및 方藥

清熱 利濕

葛根芩連湯 : 葛根, 黃芩, 黃連, 炙甘草 加 銀花하면 清熱力을 도운다. 加 伏苓 木通 車前子하면 利濕의 效力을 증강시켜 濕熱을 分消시키면 泄瀉가 멎는다. 平胃散을 습하면 燥濕 寬中할 수 있다. 神曲, 麥芽, 山楂를 加하면 消食化滯가 될 수 있다. 藿香 香薷 白片豆 荷葉을 加하면 清暑化濕이 된다.

2 腸胃의 食滯

① 症狀 · 腹痛 腸鳴 瀉下糞便의 냄새가 腐敗卵과 같고 瀉後痛感하며 不消化物이 수반되고 脘腹비만 暖腐酸臭 不思 후濁舌苔 또는 厚니하고 滑脈이다.

③ 證後의 分析

飲食不節制 宿食內停 腸胃가 阻滯되어 傳化가 失調되는 까닭에 腹痛腹鳴 脘腹비만이다 宿食이 不化되면 濁氣가 上逆되는 까닭에 暖腐酸臭가 난다

④ 治法 및 方藥

小食導體

保和丸 枳實導體丸을 쓰고 寒滯가 원인이면 抑扶煎 和胃飲을 氣滯면 排氣飲을 平胃散 微寒에 滯를 겸하였거나 虛하지 않으면 佐關煎이 마땅하다.

## □ 학 술

### 3 肝氣 乘脾

① 症狀 : 平素 胸脇脹悶 暖氣食少가 많고 항상 抑鬱惱怒로 인하거나 情緒緊張時에는 腹痛泄瀉가 발생하고 舌淡紅 弦脈이다

② 症候의 分析 : 七情의 消像으로 情湯가 긴장될 때에 氣機가 不利하고 肝이 條達을 失하여 橫逆脾 함으로 해서 그 健運을 失하는 까닭에 胸脇脹悶 暖氣食少한다.

舌淡紅 弦脈은 肝旺脾虛의 像이다.

### ③ 治法 및 方藥

抑肝 扶脾

痛瀉要方 : 白朮 白芍 防風 炒陳皮

〈景岳全書 劉草窓方에서 인용〉

처방중의 白朮은 健脾補虛하고 白芍을 養血奠肝 陳皮는 理氣散脾 防風은 升清止瀉한다

### 4. 脾胃의 虛弱

① 症狀 : 大便이 時塘時瀉하고 水穀不化 약간 油膩物이 나오면 大便 穢수가 많아지고 飲食減少 脘腹脹悶不舒하며 面色萎黃 肢倦乏力하다. 舌淡白苔 勢弱脈이다

② 脾胃의 虛弱 運化力이 없고 水穀不化清濁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大便당泄이 된다. 久瀉가 不止하고 氣血來遠이 不足한 까닭에 面色萎黃 肢倦無力하다 特히 食後에 바로 大便을 보는 경우가 많다.

### ③ 治法 및 方藥

健脾益氣

滲瀉白朮散이 主方이다.

陰寒內盛 腹中冷痛 手足不溫에 附子理中丸에 加 吳茱 肉桂하고 久瀉不止하고 中氣下陷하고 脫肛된자는 補中益氣湯을 쓰면 益氣升清하고 健脾止瀉한다. 脾虛한데 약간 滯하였으면 五味異功散을, 脾虛한데 微寒하고 滯했으면 五味異功煎 溫胃飲이 마땅하다 錢氏白朮散에 山藥 白扁豆 肉豆久를 加하면 特히 小兒泄瀉에 有效하다

### 5. 腎陽의 虛衰

① 病狀 主로 黎明煎에 腹痛 腸鳴 卽瀉하고 瀉後에 平安하다 刑寒 肢冷 腰膝酸軟 舌淡白苔 沈細弱이다.

### ③ 證後의 分析

久瀉하고 腎陽이 虛衰하여 脾胃를 溫養하지 못하여 運化가 失調되고 黎明前에 陽氣가 未振하여 陰寒이 비교적 盛한 까닭에 腹部作痛 腸鳴即瀉한다.

「五更瀉」라 칭한다.

④ 治法 및 方藥

溫腎健脾, 固澁止瀉

四神丸 : 補骨脂 肉豆久 吳茱萸 五味子 生于 大棗 加附子 포강하면 溫腎暖脾한다. 加 황기 黨蔘 白朮하면 益氣 健脾하고 「桃花湯 · 赤石脂 乾薑 粳米」하면 固澁止瀉한다. 納減이 不適하고 血瘀가 있는 자는 桂枝湯에 加 當歸 川芎 赤芍藥하면 養血 和血한다. 腎虛하고 微寒에 是 胃關煎 八味地黃湯이 마땅하다.

• 結 論

各型의 泄瀉는

單一 또는 合併으로 出現되는 자가 있고 또한 서로 傳化되는 자가 있다. 그러므로 治法은 症勢에 따라서 민활하게 選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外邪가 침습하거나 혹은 飲食所傷은 대부분 실증에 속하므로 祛邪 위주로 한다. 風寒外束은 疎解하는 것이 좋고 濕이 盛하면 마땅히 分利하여야 한다

泄瀉가 日久하고 혹은 반복 발작하여 正氣가 耗傷되었다면 대부분 허증에 속하며 치료는 扶正을 위주한다.

脾腎陽虛에는 溫補하는 것이 좋고 中氣下陷에는 升提하는 것이 좋고, 七情不和에는 疏理하는 것이 좋고 초기에는 別안간 補澁을 하지 않음으로서 邪氣의 固閉를 免하도록 한다. 久瀉가 그치지 않으면 지나치게 分利하지 말아야 陰液의 重傷을 면할 수 있다.

이밖에 치료와 동시에 生冷한 음식과 기름기 많은 肉食을 피해야 한다.